

資料目錄에 있어서

우리말의 로마字表記와 外來語의 우리말表記

-매스컴 報道資料와 관련하여-

崔 貞 泰

(釜山大學校 圖書館學科)

I. 問題의 提起

III. 外來語의 우리말 表記

II. 우리말의 로마字 表記

IV. 要約 및 結言

I.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또 아시안게임을 확정, 경기를 치루고 난 후 부터 세계는 하나의 地球村(global village)임을 실감할수 있었다. 그것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 共同目的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그러하거나와 각양각색의 인종이 한 장소에 뒤섞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가 자기의 母國語를 가지고 自身을 나타내고. 있지만 신문이나 TV에 비쳐지는 각 선수들의 로마자 이름과 우리나라에서의 通用名은 제각기 다르게 기록되고 있었다. 예컨데, 林春愛의 이름은 Lim Choon-ae ; Choon Ae Rhim ; Im Chun Ae 로, 河亨柱는 Ha Hyung-Zoo ; Hyong Ju Ha ; Ha, Hyong Joo 로 기록되고, 日本의 中山竹通은 Nakayama Takeyuki ; 중산죽통 ; 나카야마등으로, 그리고 中國의 江加良은 강가량과 장자량(Jiang Jialiang)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고 있어 이들은 각자 자기의 固有한 이름을 가지고서도 결과적으로 異名

同人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¹⁾

이러한 현상은 몇몇 운동선수만이 해당된 최근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報道資料와 각종 刊行物 그리고 記錄媒體들은 人名을 표기할때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테면, 로날드 윌슨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을 로날드 레이건, 레이간, 리-간, 레-간, 里根, 雷根, 李伊根²⁾으로 쓰고, 펄·벅(Pearl S. Buck)은 벅; 벅, 펄; 퍼얼 시덴스트리커(Sydenstricker) 벅; 朴眞珠³⁾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中曾根康弘을 나카소네 야스히로(Nakasone Yasuhiro), 야스히로 나카소네⁴⁾ 중중근 또는 중중근강홍으로, 藤尾正行을 후지오 마사유키(Fujio Masayuki) 또는 등미정행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리고 中國의 毛澤東은 모택동 또는 마오 쟈똥(Mao Tse Tung)으로, 鄧小平은 등소평 혹은 탕 샤오핑(Teng Hsiao Ping)으로 각각 달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林春愛의 이름이 외국인에게 「임」으로, 「림」으로, 「린(Lin)」으로 변형될 수 있고 中國의 江加良은 한국인에게 「장」인지, 아니면 「강」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며 毛澤東의 姓은 「모」로 할것인지 「마오」로 할것인지 그 판별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와같은 일련의 이름 표기문제는 圖書館의 目錄記述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최근 國內 日刊紙의 독자들이 投稿로 지적

1) 1986. 9.20~10.2 사이에 국내 日刊英字신문 및 TV字幕에 보도된 記事에

2) Reagan을 中共에서는 里根으로, 台灣에서는 雷根으로 표기하고 李圭泰씨는 加利福尼亞(California) 李氏伊根으로 하자고 한다. 朝鮮日報 「李圭泰코너」 1983. 11. 15.

3) 그의 한국명. Pearl은 眞珠이고, 벅은 우리나라에 그러한 姓이 없으니 朴으로 고쳐 불렀다 한다. 그러나 Buck은 실은 그녀 남편의 姓인 것이다.

4) Korea Herald, Korea Times 등은 Yasuhiro Nakasone로 到置하여 쓰고 있다.

하면서 이에 따른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⁵⁾

이러한 문제들은 人名에서 뿐만 아니라 國名의 표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日本을 닛뽕(Nippon)으로 저팬(Japan)으로, 「일본」으로 두루 혼용하고 있으며, 中華人民共和國(公式名稱)은 어떤 때는 「中國」으로 또 어떤 경우는 「中共」으로 표기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92년 올림픽 개최국 「스페인(Spain)」은 국내 매스컴資料에서 흔히 쓰는 用語지만 初, 中, 高校의 모든 교과서와 지리부도에서는 「에스파니아(Espania)」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아직도 「西班牙」로 통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은 공식명칭이 CCCP[és és és éar]인데 U.S.S.R(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러시아, 쏘비에트, 露西亞, 露國, 俄羅斯 등 7개의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 지고 있다.

한편, 地名의 표기에 있어서도 한 지명에 대하여 原地音식 표기와 英語식 표기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들면, Paris를 빠리와 패리스로, 나폴리를 나폴리(Napoli)와 네이플스(Naples)로, 뮌헨을 뮌첸(Munchen)과 뮌니크(Munich)로, 빈을 뷔인(Vien)과 비에너(Vienna)로, 北京을 베이징(Beijing)과 페킹(Peking)등으로 각각 호칭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무원칙하게 混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人名을 비롯하여 國名, 地名등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중복 호칭되어 사용되고 있을 때 일반 국민이나 우리나라를 찾는 外國人에게 혼동을 일으켜 곤혹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圖書館을 이용하는 모든 利用者에게도 資料檢索上 상당한 不便을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항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原則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文敎部등 관계기관에서

5) 朝鮮日報 「民聲」독자란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계속하여 게재하고 있다.

1986.10.16 이승남씨; 1986.10.18 辛永吉, 변상구씨 및 교열부; 1986.11.6. 俞萬根 교수등.

단편적으로 告示를 한다 하여도 일관성이 있는 시행세칙이 없어 보편적 通用性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위의 원칙이 해결된다 하여도 이를 로마字化하였을 때 音譯의 방법에 따라 表記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하나의 한글로 로마字化하는데도 실상은 로마자를 사용하는 言語差에 따른 表記體系로 英語식이나 佛語식 또는 獨語식등과 같은 차이가 있고, 이보다 構造的으로 언어의 對象差에 따라 音聲表記(Phonetic transcription)와 音素表記(Phonemic transcription)가 있다. 後述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如何히 해결하고 言語差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것이 課題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論文에서는 위에서 提起된 言語의 表現문제를 가지고 첫째, 우리말에 있어서 로마자 表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과 둘째, 外來語에 대하여 어떤 原則에 입각하여 우리말로 표현하느냐는 것을 主眼으로 삼고자 한다.

따지고 본다면 이러한 問題의 提起는 圖書館學중 資料組織의 한 側面이라기 보다 社會全般에 걸친 言語의 醇化문제와도 관련되어 일반 매스컴 報道資料나 教育機關과 言語學者가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圖書館의 資料利用이 온 국민이 다 같이 共有하여야 할 권리일진대 도서관의 目錄記述이 이러한 점에서 統一이 되어야 하고 利用者를 위한 입장에서 우리의 意見을 闡明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 圖書館人이 時急히 해결하여야 할 課題라고 믿는다.

II. 우리말의 로마字 表記

우리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우리의 人名이나 地名을 읽으려면 그 나라 文字로 音譯하여 읽어야 한다. 서양뿐만 아니라 漢字를 사용하는 中國이나 日本에서 같은 漢字로 우리 이름을 써 놓고 자기들의 발음으로 읽게 한다면 그것은 벌써 우리 이름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혼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것이 로마(Roma)字이다. 이 로마자는 國籍

이 없는 一般文字로 音譯에 있어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姓名에도 저마다 사용하는 개인적인 로마자의 表記形式을 취하고 있다.

各者の 고유한 姓名은 남에 의하여 변경될 성질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表音은 남에게 바로 입혀야 하므로 개인이 모두 동일한 表記基準에 따라 적어야 하겠으나 실제로 이를 통제할 길이 막연하다. 누구나 자기 이름을 音譯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겠지만 그 表記의 결과는 차이가 크다.

이를테면, 같은 李씨 姓의 Yi Sun Shin (李舜臣)과 Syngman Rhee (李承晩), 그리고 Lee Si-Yong (李始榮)은 자기 같은 姓(family name)으로 볼 수 없게끔 되어 있고 姓·名의 構造上으로도 姓과 名의 식별이 매우 어렵도록 기록하고 있으며, 現存人物 중에서도 LHO Shin-Yong (盧信永), Roh Tae-Woo (盧泰愚), Noh Ock-Soon (盧玉順), Ro Chung Soon (노정순), 그밖에 No 씨...등의 기록형식을 보면 同質性이 전혀 없어 우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은 同一姓의 의미를 찾을 수 없도록 各者の 취향대로 표기하고 있음을 본다.⁶⁾

그리고 정(鄭, 丁, 程)씨의 姓을 표기할 때도 구별하지 않고 Cheong, Chong, Chong, Chung, Jeong, Jong, Jung, Tsong, Zung...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 어느것이 가장 정확한 표기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판단기준이 서지 않는다.

설령, 위 표기중 하나가 정확하더라도 表記體系의 형식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姓名을 기록할 때 우리는 대개 姓名의 順으로 쓰지만 西洋에서는 名姓의 順序로 쓰고 있다.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만큼 그 表記體系를 姓名順으로 할 수도 있고 名姓順으로도 할 수 있다. 즉 Kim Dae-Jung⁷⁾ (金大中)과 Dae Jung Kim⁸⁾이 그것이다. 前者는 전통적

6) 國內英字新聞과 英文著者索引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밖에도 많은 姓의 英文表記가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7) 國內英字新聞등 매스컴의 표기에.

8) Time, Newsweek 등 외국매스컴의 표기에.

우리 姓名順으로 음역한 것이고 後者는 서양인의 慣行에 맞춘 名姓順表記法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문제가 惹起되는 것은 姓과 名의 區別이다. 그리하여 姓과 名사이에 콤마(,)를 찍어야 한다는 이론과 필요치 않다는 논리가 한때 論爭⁹⁾이 되기도 하였으며 名(middle name)과 名(first name) 사이 하이픈(-) 插入여부에 대하여서도 명문규정이 없었는데 새로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이를 넣도록 결정하였다.¹⁰⁾

우리말의 로마字 표기는 1948년 學術用語制定委員會와 言語科學委員會가 공동으로 제정한 表記法에 따랐다.

그러다가, 1953년 「문교부국어심의회」의 「외래어분과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 기관에서 로마자의 한글화표기(Koreanization)와 한글의 로마자표기(Romanization) 방법을 연구하여 약 6년간에 걸쳐 많은 학자, 실무자, 행정가들이 연구팀에 참여하여 1959년에 비로소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과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 제정공포되었다.¹¹⁾

이 표기법으로 각급 學校 教科書, 政府刊行物, 地名, 道路名, 譯名등을 기록하여 상당히 보급되어 왔으나, 국내의 美軍事機關이라든지 일부 官公書나 會社, 英字新聞등에서는 1939년에 제정된 ‘머쿰·라이샤워 표기법’(이하 M-R식으로 칭함)¹²⁾을 사용하여 文敎部表記法(Ministry of Education System)(이하 MOE식으로 칭함)과 공존하!로서 表記에 혼란을 일으키곤 하였다.

9) 李載喆,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의 연구, 圖書館學, 第1輯(1970) P.P. 1~57 및 張一世, 우리나라에 있어서 저자기호표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 第2輯(1971) P.P. 1~45.

10) 國語로마자表記法公布, 東亞日報 1983.11.29.

11) 문교부, 「로마자의 地名一覽表」 前文 1972. 4. 1.

12) 美國 캘리포니아大學의 G.M.McCune 과 하바드大學의 E.O.Reischaer 교수가 1939년 공동으로 작성 발표한 한글의 로마字表記法,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34, (Seoul, 1939) P. P. 119~128에 그 原理와 構造, 內容을 수록하고 있다.

M-R식은 表音主義를 원칙으로 한국어를 모르는 外國人이 우리 말을 읽는데 부담감이 적고 실제발음에 접근되도록 考案되었기 때문에 현재 美國을 위시하여 西歐의 많은 나라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는 우리나라 言語의 현실감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타자 기에도 없는 부호가 있어 생소하고 表記上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MOE식은 우리나라 政府가 국내학자를 동원하여 한글 正字法의 원칙에 따라 1音韻을 1記號씩 翻字하여 그대로 옮겨 적는 音素記號表이다. 이 표는 前述한 바와같이 우리 政府의 公式記號로서 政府의 記錄文書와 각급 圖書館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學界에서는 첫째로 한글 철자법의 원칙에 입각한 문교부 표기법은 원음을 무시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둘째로 원칙과 몇가지 허용사항만 예시하고 세칙이 결여되어 표기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¹³⁾ 한 例로, 이 방식에 따르면 「거북선」은 「Geobugseon」이 되는데 이 표기를 영어사용권의 外國人들은 「지오벅선」으로 발음하게 된다. 外國인이 이렇게 말할 경우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칭하는 「거북선」과는 발음면에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게 되고 이것은 의사소통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

문화적, 경제적 국제교류의 幅과 質이 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이때, 상호교류의 한 수단으로서의 國語의 로마자 表記法의 통일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므로 現行 표기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분석 검토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안사항이 第5共和國에 들어와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새로운 표기법을 1983년 11월 28일 文敎部가 최종 확정하여 12월에 公布하였는데 이 표기법의 명칭도 종전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꾸어 활용토록 하였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로마자문제를 도외시킬 수는 없다. 外國인의 우리말 학습이라든가 우리말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도 로마字化는 국

1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 I. 경위 및 개요, 한국어대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6. 6) P. 3019.

제상 한글이 통용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對內的으로 그 언어의 國字로서 새로 채용하는 적극적인 개혁만이 아니라 對外的으로 필요한 로마자화 (Romanization), 또는 轉寫를 위한 소극적인 목적도 있다. 그리고 이 表記는 발음이 꼭 일정하지 않더라도 로마자는 한가지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¹⁴⁾ 우리는 자기의 이름이 남에게 불리워질 때 가장 정확하게 불리워 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言語의 표기에 있어서 가령 정씨를 Chong, Chung, Jeong, Jung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하여 이를 英語式, 佛語式, 獨語式으로 하여 자기 國音으로 발음할 때 共通音으로 발음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李씨가 각각 다르게 Lee, Rhee, Yi로 表記되었을 때 외국인은 이를 같은 姓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떻든, 여기서 우리는 各國의 言語差를 가급적 줄여서 音譯에 가까운 하나를 설정하여 國家的 원칙에 따라 統一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原則에만 合意한다면 그것이 音聲表記 (Phonetic transcription) 든 音素表記 (Phonemic transcription) 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前者는 表音主義的이어서 외국인의 발음에는 편리하나 言語構造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後者는 表意主義的이어서 언어구조를 나타냄에는 유리하나 외국인이 바로 읽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두 시스템은 一長一短의 利와 害가 있으나 국어학자 金敏洙 교수¹⁶⁾와 도서관학자 崔達鉉 교수¹⁷⁾도 表音主義를 支持하고 있고, 한국의 文教部도 종래까지 사용해 오던 表意主義를 버리고 M-R식과 더불어 音聲表記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좀더 보완개발하여 目錄

14) Japan을 英音으로는 「저팬」, 佛音으로는 「자퐁」, 獨音으로는 「야판」, 西音으로 「하폰」으로 각각 다르게 發音되지만 로마자는 통일해서 하나로 표기하고 있다.

15) 金敏洙, 國語政策論, (서울, 高麗大出版部, 1973) P. 288.

16) 前掲書, P. 289.

17) 崔達鉉, 圖書館目錄上 翻字表記의 實態와 諸問題, 慶北大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 28輯 (1979) P. 213.

記述上에서 같이 적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要約하면 로마字化는 表音主義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보다 먼저 先決하여야 할 것은 人名의 表記體系이다. 그것은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姓·名順이나 아니면 名·姓順이나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둘중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 한국을 비롯하여 中國, 日本등 東洋諸國에서는 姓을 앞에 놓고 그다음 名을 두는데 반하여 英美를 위시한 西歐에서는 名을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姓을 기록한다. 이의 영향으로 한국의 많은 著名人士들이 제 이름을 英文으로 표기할때 名·姓순으로 표기하고 있고, 國內外의 매스컴에서도 또한 그렇게 記述해 주고있다. 뿐만 아니라 姓과 名사이에 콤마(,)를 찍는다든가, 名(middle name)과 名(first name)사이 하이픈(-)을 사용하여 일관성이 없어서 이를 읽는 제삼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양에서도 姓名의 순위가 여하튼 간에 姓이 檢索의 基本要素가 된다. 일반적인 사전(dictionary, encyclopedia)이나 人名事典, 그리고 圖書館 目錄記述上의 표기가 그 예이다. 그러나 藝名등 특수한 경우로 名이 姓보다 앞세워져 통용되는 이름의 檢索을 위해 人名을 밝히고자 할때 姓을 앞세우고 倒置의 표시로 콤마를 찍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저버리고 한국의 일부 人名表記는 필요없는 콤마를 쳐 오하려 불편을 주고 있다고 李載喆교수도 지적한바 있다.¹⁸⁾

그러므로 지금까지 무리없이 사용해오던 姓·名의 순서를 로마자 표기의 구실로 名·姓으로 倒置한다든가 콤마의 사용은 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두명사이에 삽입된 하이픈(-)문제도 새로운 부담감을 加重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姓名은 대체로 1音節의 姓과 2音節의 名으로 구성된다. 한글의 「인명, 지명, 숫자표기법」¹⁹⁾에서 성과 이름은 띄어 쓰고 이름끼리는 붙이게 하여 이름의 두 음절은 하나의 意味로 확정하고 있다.

18) 이재철,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 延世大學校 人文科學, 18 輯(1967) P.P. 65 ~ 92.

19) 한글전용편람, (서울: 문교부, 1969) P.17.

여기에 의하면 朴正熙는 Park Chong Hee도 아니고 Park Chong-hee도 아닌 Park Chonghee로 하여야 한다.

원래, 하이픈의 목적은 두 音節 사이에 發音上 혼동될 우려가 있거나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²⁰⁾ 하는데 분절의 구분도 필요치 않고, 발음상 혼동이 없는 이름 한 가운데 하이픈을 삽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다음, 人名 이외에 地名 등 固有名詞의 로마자 표기문제에 대하여 論及코자 한다. 前述한 바와같이 한국의 人, 地名 이외에 行政區域名, 自然地物, 文化財名 등을 로마자로 표기할때, 특히 國內에서는 MOE식을 채택했었는데 1985년 이후부터 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표기원칙에 따라 고속도로 안내판부터 개정작업을 하여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일부 國道나 地方道路는 아직 종전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는 兩方式이 共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 작업이 모두 완료되더라도 우리 言語의 구조상 어느정도 만족한 발음은 어려울 것이다. 한 예로 「독립문」의 개정전 표기로는 「Dogribmun」이고, 개정후 표기로는 「Tongnimmun」이 된다.

音素대로 옮긴 前者의 표기가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더러 意味마저 이상해 진다 하여 당시 장안의 話題가 된²¹⁾ 이 表記法을 音聲表記로 바꾸었어도 역시 제 音價가 정확히 표출된다고는 할 수 없다.

몇가지 예를들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속의 앞에 것은 개정전의 것이고 뒤의 것은 개정후의 로마자표기임 >

부산 (Busan : Pusan), 동래온천 (Dongrae Oncheon : Tong-nae Onchǒn), 정주 (Jeongju : Chǒngju), 청주 (Cheongju : Chǒngju), 을지로 (Euljiro : Ŭlchi-ro), 보은 (Boeun :

2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 (본문제3장 제5항)

例, 장이 (jang-i), 장기 (jang-gi), 장끼 (jang-ggi)

21) 2개의 「독립문」 도로안내문 로마자표지; 로마자 새表記 論難없을까. 東亞, 朝鮮日報, 1983.11.28 ~ 29 (논란의 내용은 독립 (dog rip)이 英語로 개의 늑골, 갈빗대라는 의미 해석에서 부터 시작된다)

Poŭn), 포항 (Pohang : Pohang)

극히 일부의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표기문제는 단순치 않으며 정확한 발음면에서도 一長一短이 있어서 하나의 表記法을 고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筆者의 所見으로 表記는 表意主義를 원칙으로 하되 로마자 이외의 특별한 부호는 가급적 생략하고 융통성을 두어 필요시 音素表記를 적용할 수도 있게 한다. 그리고 表記의 統一性은 반드시 요청되며 일단 확정된 표기는 가급적 변경을 지양하고 言語政策機關의 主導下에 언론기관이나 教育媒體를 통하여 꾸준히 주지 보급시켜야 하며 圖書館 현장에서 공동보조를 맞춰 같은 형식의 目錄體系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外來語의 우리말 表記

우리는 흔히 外國語와 外來語 구분에 자칫 혼동을 하고 있다. 외국어는 우리 이외의 민족이나 그 국가에서 상용하는 언어이고, 외래어는 그러한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 國語로 쓰이게 된 말, 즉 國語化한 外國語이다.

이러한 외래어는 국어의 語彙에서 상당한 量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사용량도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다. 점차 국제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느나라든지 외래어를 도외시킬 수 없게끔 수용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地政學的으로 東西洋의 言語가 복합되어 뒤섞이게 되고 수입경로가 다양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리고 외래어 수용의 역사도 오래이어서 이를 우리말로 表記하는데 학문적으로도 많이 기우렸던 것 같다. 외래어를 최초로 우리말로 表記한 것은 「東國正韻」의 漢字音表記라고 하고 있다.²²⁾ 世宗은 당시 漢字音이 혼란訛傳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어 漢字音表記體系를 수립하였는데, 中國韻學에 맞추었기 때문에 當時 漢字音과는 상당

22) 崔達鉉, 前揭論文 P. 218 및 서울大東亞文化研究所, 國語國文學辭典(서울: 신구문화사, 1975) P. 443.

한 거리가 있어 결국 失敗하였다고 한다.

그 후, 近世에 들어와 1940년 朝鮮語學會에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결정되어 책자를 간행한 바 있으나 公式表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政府樹立후 1948년 文敎部가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위원회의 결의로 「外來語表記法」을 제정하였다.

그뒤, 문교부는 국어심의회에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제정 공포하여 계속 시행하여 왔었는데 1976년 국어순화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 「報道用語統一審議委員會」가 상설기구로 설치됨에 따라 외래어 표기통일문제가 거론되고 국어국문학회로부터 「외래어 표기법안」을 마련하였다.²³⁾ 그러나 이 案 역시 確定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前述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과 더불어 第5共和國에 와서 最終 확정을 지어 告示된 것이 이른바 「외래어표기법」이다.²⁴⁾

이 표기법은 全4章 2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은 표기의 일람표, 제3장은 표기세칙, 그리고 제4장은 인명, 지명의 표기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표기법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데 국제음성기호나 대조표에 따라 표기하지만 中國語와 같이 국제음성기호를 쓰지 않거나 에스파냐語, 이탈리아語, 日本語같이 철자가 곧 音聲記號의 역할을 하는 언어는 별도의 한글대조표를 만들어²⁵⁾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컨대 外來語表記의 원리는 한마디로 국어表記의 원리와 規定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본다. 外國語는 위의 원칙에 맞춰 가급적 原語의 스펠링을 생각하며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하여야 하지만 外來語는 넓은 의미의 國語이므로 꼭 원음에 맞추어야 한다기 보다 그 말이 우리 국어사회에서 어떻게 발음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體系에 맞는 발음을 따라 表記하면 된다고 본다. 외래어의 표기는 일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23) 외래어표기법안: 1. 경위 및 개요, 한국어대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6. 6) P. 3014).

24) 외래어표기법, 문교부고시 제 85-11 호 (1985. 12. 28) 문교부.

25) 上揭書, 부록 P. 6.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쉽게 보고 익혀서 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外來語는 表記方法이 쉽고 단순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어떤 原則에 입각한 표기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대체로 외국에서 온 人名, 地名등 수많은 件名마다 그 표기법은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표현할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표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외래어는 出處에 따라 그 表記音을 달리 하는데 어느것은 原地音에 따르고, 어느것은 英語식표기에 따르며 또 어느것은 自國語로 翻字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例擧하면 다음과 같다.

가. 人名表記의 예

A	B	C
R. Reagan	레이건, 레이간	里根, 雷根
B. Napoleon	나폴레옹	拿 破 崙
G. Washington	워 싱 턴	華 盛 頓
中 曾 根 康 弘	나카소네 야스히로	중중근강홍
伊 藤 博 文	이토 히로부미	이 등 박 문
鄧 小 平	팅샤오핑 (Teng Hsiao Ping)	등 소 평
林 語 堂	린유탕 (Lin Yutang)	임어당, 림어당

위의 예에서 A항은 自己 固有人名이고, B항은 고유명칭을 音價에 맞춰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며, C항은 本名을 우리말로 翻字하거나 漢字音으로 번안된 것을 우리말로 읽어 표기한 것이다.

西洋人名의 표기를 우리나라 開化期에는 華盛頓, 拿破崙, 比斯麥 (Otto Eduard von Bismark) 등과 같이 읽어²⁶⁾ 오늘날 中國식 표기 즉

26) 張美英, 개화기의 역사전기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1987.2) P. P. 43 ~ 44.

里根, 雷根처럼 표기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르러 거의 사용치 않고, 워싱턴, 나폴레옹, 비스마르크와 같이 음가대로 적어 제 길을 찾고 있다. 그러나 東洋人名중 특히 中國, 日本人名의 호칭은 아직도 統一的인 호칭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書誌目錄 작성에 있어서도 가장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들의 대부분은 中國語나 日語로 된 자료를 우리 음으로 읽어 표기하고 있다.²⁷⁾ 그러나 中國과 日本등지에서는 서지목록 작성의 편의성, 藏書의 효율적인 이용, 학술정보의 國際的 교환을 위하여 自國語와 로마자로 翻字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국자료를 原地音이 아닌 우리 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原語와 함께 上記한 中國과 日本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기법을 취하여 세나라가 共同으로 資料의 書誌統整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⁸⁾ 그러나 여기에 前提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 이외의 두나라도 이 점에 대한 認識度가 같이 병행되어 균형을 이룰수 있는 것과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中國人名의 호칭방법(예, 한자음 표기)과 日本人名의 호칭방법(예, 현지음 표기)이 서로 맞지 않은 상황에서 書誌統整의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실현되지 않을 때는 필요이상의 典據目錄(authority file)이 요구되고 資料의 整理문제에 있어서도 그 基準如何에 따라 人名뿐 만아니라 國名, 地名에 까지 連繫되어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에 따르되 좀더 신중한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를 먼저 國名 호칭에서 찾아본다.

27) 高錫俊, 圖書館目錄에 있어서 標目的 表記에 관하여: 標記文字를 中心으로, 國立大學圖書館報, 第4輯(1986) P.P. 131 ~ 132.

28) 上揭論文 P. 132.

나. 國名表記의 예

A	B	C
Belgie	Belgium	벨기에, 벨지움, 白耳義
Deutschland	Germany	도이취, 저먼, 獨逸
Espania	Spain	에스파니아, 스페인, 西班牙
Netheland	Holland	네델란드, 홀랜드, 오란다, 和蘭
CCCP	U.S.S.R	소련, 쏘비에트, 러시아, 露西牙
中國人民共和國	China	中國, 中共
日 本	Japan	닛뽕(Nippon)니혼, 일본

위 「나」의 예에서 보면 A항은 國家의 公式名稱인데 B항은 英語식 명칭이다. 국가의 호칭은 마땅히 정식명칭으로 불러야 하지만 줄여서 略式명칭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他國家 호칭은 대개 B항에 익숙하여 영어식 표기를 탈피치 못하고 있을뿐 더러 C항에서 처럼 원칙없이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光復 40년이 지난 지금에 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美國식 교육이 그동안 사회전반에 깊숙히 침식되어 표기와 발음이 우리 言語生活에 漸入된 현상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地名의 표기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原地音表記와 英語式表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체로 英語식을 많이 현지음으로 접근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그 예를 보기로 하자

다. 地名表記의 예

A	B	C
Paris (빠리)	Paris (패리스)	파 리
Napoli (나뽀리)	Naples (네이플즈)	나 포 리
Munchen (뮌헨)	Munich (뮤니크)	뮌 헨
Vien (뵤인)	Vienna (비에너)	빈
San Jose (산호세)	San Jose (산조스)	산 호 세
北 京(Beijing)	Peking (페킹)	북경, 베이징
東 京(とうきょう)	Tokyo (토-코)	동경, 도-쿄

「다」의 예에서 보면 A항은 原地音식 표기이고 B항은 英語식 특히 美國에서 쓰여지는 표기이다. 우리는 地名에 관한한 A항을 채택하거나 A항을 변형한 C항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地名도 國名과 같이 固有名詞이기에 두가지 이름이 있을 수 없다. 가령 서울(Seoul)을 각 나라가 편한 대로 세울(Séul)²⁹⁾로 발음하거나 京城(Keijo)나 漢城 혹은 漢陽으로 표기하였을 때 결과는 웃지 못할 착오를 일으킨다.³⁰⁾

이러한 표기법은 프랑스 사람이 런던(London)을 아무리 「퐁드르」라고 불러 보았자 런던은 역시 런던이고, 美國인이 멕시코의 산호세(San Jose)를 아무리 「산조스」라고 고쳐 불러도 역시 「산호세」의 地名은 변함없는 것과 같음을 모른데서 온 所致이다.

마찬가지로 中國인이 自國語 발음으로 東京(Tokyo)를 「퉁징」(Tungjing)으로 표현하듯이 우리는 그들의 北京을 베이징(Beijing)도, 페킹(Peking)도 아닌 「북경」이라 하고, 南京은 난징(Nanjing)도, 난킹(Nanking)도 아닌 「남경」이라는 우리 한자음으로 호칭하고 있다. 같은 東洋圈에서 漢字를 사용하는 우리가 日本의 大阪(Osaka)를 「대판」으로 하지 않고, 名古屋(Nagoya)를 「명고옥」이라 하지 않으면서 中國의 人名과 地名에 한하여 그렇게 표기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겠다.

圖書館의 目錄記述면에서 볼 때 가장 쉬운 표기방법으로 우선은 日本도 中國의 表記音같이 現地音을 우리말의 漢字音으로 읽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利用者의 입장에서 볼 때 外國의 學術情報資料는 原語를 해독치 못 하고는 漢字만의 음독이 아무런 意味를 두지 못함을 알 때 그 効用性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現地原音의 表記는 당연시된다고 보겠다.

29) 사마란치(Antonio Samaranch)가 88올림픽 개최지명을 에스파니아 발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30) 실제로 中國에서 「서울大學校圖書館」에 국제교환용으로 우송하는 자료가 「漢城大學圖書館」이나 「漢陽大學校圖書館」으로 誤配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견된다.

그것은 곧, 현대는 문화적 교류가 증대되고 原地音이 우리 생활속에 파고 들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행이 現地音을 존중하고 있음³¹⁾을 우리는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 세계가 現地原音을 추종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原地音까지 抹殺하고 漢字音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본다. 본인의 고향은 원래 산골 「한밭」이라는 곳이다. 이를 호적부에는 「大栗」로 고쳐 「대울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예는 나아가 「한밭」을 大田으로, 「삼다리」를 插橋로, 「붓골」을 筆洞으로, 「무돌이」를 河回로 고쳐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상이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것 까지도 과거 옛 이름으로 돌아가야 한다.

外國의 地名이 가급적 原地音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 國內에 있는 地名도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것은 당연한 論理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地名表記에 있어서도 이미 國語化된 地名은 종전대로 시행하되 새로운 地名을 만들 경우 무리한 漢字化를 지양하고 순수한 옛이름을 발굴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IV. 要約 및 結言

國內外에서 報道되고 있는 매스컴資料 가운데 人·地名등 고유명사의表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固有名詞란 어느 한 사람이나 地, 物이 저마다 특유한 이름을 지니고 있어, 하나 이상이 존재할 수 없고 그表記에 있어서도 마땅히 하나로 통일 되어 그것을 누구나 보아도 한가지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령 지구인의 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이 母國語가 아닌 他國의 문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거나, 그리고 세계속의 한 국가가 나라마다 다르게 호칭되거나, 地名이 여러가지로 바뀌어 불리어 질 때 當事者는 물론 당사국과 그 지역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며 書誌統整면

31) 高錫俊, 前揭論文 P.134.

에서도 그 혼란 또한 막심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國語를 第三國語로 표기할 때 흔히 로마자를 사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로마자 表記는 言語差에 따라 英語식, 佛語식, 獨語식등 音譯에서 차이가 나고 構造的으로 언어의 對象差에 따라 音聲表記와 音素表記로 나누는데 세계 主要國 圖書館의 目錄體系와 L.C (美議會圖書館) 目錄카드 등에서 음성표기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32) 우리나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駐韓 外國人과 국내 英字 매스컴資料등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여 1959년에 만든 음소표기체계인 MOE식과 혼용하여 실시하여 왔었는데 결국 文敎部도 1985년부터 M-R식과 유사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채택 실시중인데 이것 또한 문제점이 적지 않으며 그 보급조차 미흡하고 선전이 되지 못해 국내 圖書館에도 시행이 요원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적, 지정학적 영향으로 세계의 어느나라보다 外來語가 범람하고 있으며 그 사용빈도도 전체언어의 절반에 이른다 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외래어의 표기문제로 언제나 많은 말썽을 지낸 채 사회의 매스컴 報道資料나 일선 教育기관등 教育매체에서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光復 4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완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 나라의 語文政策은 국가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무리없이 다 같이 공감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對外的으로도 어느 한 국가에만 편중해서 시행되어서는 아니되고 偏見이 介在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文敎부의 외래어표기법상에는 “人, 地名은 原地음을 따르도록” 하고 세계적인 慣行이 原, 現地音의 추종주의를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

32) N. U. C (National Union Catalog) 및 Harvard Yenching Library Catalog의 漢字資料중 로마자 齣字表記에서 中國資料는 Wade-Gills 식, 日本資料는 修正 Hepburn 식, 韓國資料는 M-R 식으로 기재하는데 모두 같은 방식이다.

이럴 때 市民精神에서 뿐 만 아니라 圖書館人의 입장에서 資料利用의 편의를 圖謀하고 目錄記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그 誤謬를 지적하고 우리들의 견해를 천명하는 것이 道理일 줄 믿는다.

이를 整理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名表記의 體系에 있어서 우리 이름은 姓(last name) · 名(first name) 順으로 하되 姓 · 名사이에 콤마(,)와 名(middle name) · 名(first name)사이에 하이픈(-)을 없앤다. 그리고 西洋人名은 그들의 慣例대로 따르고 다만 目錄記述時 AACR原則에 의거 名 · 姓을 倒置시켜 姓다음에 콤마를 친다. 또한 中國, 日本의 人名도 現地音을 採擇하되 우리 이름식으로 表記한다.

둘째, 로마자 표기에 있어서 音聲表記(Phonetic transcription)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발음을 고려하여 표기상 二重發音등 혼란을 방지토록 보완하고, 확정된 표기는 가급적 변경을 지양한다.

셋째, 國 · 地名의 표기는 原地音에 충실하고 英語식 표기를 지양하여야 하며 中國, 日本에서 온 이미 國語化한 외래어는 慣例대로 표기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地名表記에 있어서도 가급적 原地音을 살리고 漢字音化를 삼가하며 가능하다면 옛 이름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다.

넷째, 올바른 語文政策을 위한 常設 研究所를 설치하여 專門學者와 더불어 圖書館學者도 가담하여 共同研究케 하고 각급 학교의 教材나 言論媒體를 통하여 꾸준히 普及 啓導시킬 것이며 각종 圖書館資料의 利用面에서도 協力體制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後註: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개최한 제 8 차 국립대학(교) 도서관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1986.12.19~20) 특강자료로 발표된 것을 보충 정리하여 게재하는 것임.

〈脚註이외의 主要參考文獻〉

- 1)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표준용포맷제 1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1
- 2) _____,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5
- 3) 南台祐, 目錄에 있어서의 標目法の 變遷考, 中央大大學院碩士學位論
文, 1982
- 4) 白玉姬, 目錄上에서의 韓國政府刊行物の 團體名標目, 慶北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 5) 柳東烈, 도서관목상 표목의 표기에 관한 소감, 동대문도서관보 제
2집 (1973) P.P 53 ~ 57
- 6)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 問題點, 도협월보
V. 16, N. 10 (1975.12) P.P. 9 ~ 12
- 7) 한국도서관협회, 韓國目錄規則 第3版, 서울: 한국도협, 1983
- 8) Anglo 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
A. L. A. 1978
- 9) Maxwell, Margaret F., Handbook for AACR 2. Chicago :
A. L. A. 1980
- 10) Proceeding of the first Asian-Pacific Conferen-
ce on library Science; 13 ~ 19 March, 1983, Taipei.
Cultural and Social Centre for the Asian and Pa-
cific & Natl. Central Library, Republic of China.
- 11) Proceeding of the Second Asian-Pacific Conferen-
ce on library Science: 20 ~ 24 May, 1985, Seoul
- 12) OCLC, Annual Report 1984 ~ 1985 and Name-Address
Directory Apr. 1985, Cataloging Subsystem Referen-
ce Guide, June, 1985.